

광양 출신 소설가 이균영 테마거리 만든다

이상문학상 최연소 수상...내년 우산공원에 문학비 건립 문학공원·생가 등 연계 새로운 시민 문화공간 조성키로

광양 출생의 소설가이자 역사학자인 이균영을 추모하기 위한 이균영 문학비가 내년 하반기에 광양 우산공원 내에 건립될 예정이다.

광양시는 지난 20일 '이균영 문학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문학비 건립 위치, 비문, 형태와 재질 등을 최종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균영 문학비 건립 추진위원회는 문학비 건립 위치를 이균영 작가의 생가와 연계해 광양읍 우산리 369번지 일원에 '(가칭)이균영 문학공원'을 조성하고, 내우마을 생가와 이어지는 마을길은 이균영 작가의 테마거리로 조성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할 계획으로 우산공원을 최종 선정했다.

비문안은 제8회 이상문학상 최연소 수상작인 '어두운 기억의 저편' 중에서 문인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4개의 글 중 사전간

담회를 통해 선정된 소설가 박혜강의 추천 글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선정됐다.

또 이균영 작가의 발자취를 되새기고자 문학비 건립비를 후원한 광양기업 황재우 회장의 후원 글도 새겨 문학비 건립의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다.

문학비 디자인은 총 3개 안 중 문학비 건립 위치인 우산공원과 비문 내용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선정됐다.

김중호(광양시문화원장) 위원장은 "2018년부터 논의해 온 이균영 문학비 건립 위치와 비문내용, 디자인 등을 최종 선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문학공원이 되길 기대한다. 문학비 제막식은 작가 타계일인 11월 21일에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균영 문학비 건립은 황재우 광



문학비 디자인 조감도. <광양시 제공>

양기업 대표의 제안과 후원으로 문학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광양시에서 추진해 오고 있다.

이균영 작가는 지난 1951년 광양읍 우산리에서 태어났으며 광양중학교, 경북고등학교, 한양대 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7년 단편소설 '바람과 도시'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후 등단했

다.

1984년 '어두운 기억의 저편'으로 제8회 이상문학상을 최연소로 수상했으며 1993년 '신간회 연구'로 제8회 단재학술상을 수상했다.

이균영 작가는 1996년 11월 21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타계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 시내버스 노선 새해 대폭 개편

탑승률 저조 구간 통폐합 도심형 순환버스 신설

광양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해부터 노선을 대폭 개편한다.

광양시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 31개 노선 53대에 대해 탑승률이 저조한 노선과 중복 운행되는 구간 일부를 통폐합했다. 또 신규노선 신설 등 개편을 통해 총 29개 노선을 운행한다.

광양시의 시내버스는 간선과 지선의 체계적인 역할분담과 연계를 위해 정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운행 거리와 운행 시간을 단축하면서 노선개편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우선 도심인 중마동 지역에 '도심형 순환 버스'가 신설된다.

신설된 '도심형 순환 버스'는 중마터미널-감남병원-광양서울병원-중마터미널을 1일 92회 운행한다.

또 99번, 99-1번의 간선화로 광양읍과 시외지역의 운행 시간을 단축했다.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이용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을 반영, 88번에서 분리한 87번(광영-제철복지관)이 신설돼 하루 32회 운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88번(광영-공기)을 44회에서 13회로 감회 운행한다.

일부 운행구간이 중복되는 노선인 11-1번, 17번, 86번과 탑승률이 저조한 52번(용장), 53번(군장) 등 5개 노선은 폐지된다.

폐지와 노선조정으로 경유하지 못하는 봉강면 부현, 저곡마을, 진월면 사평마을, 다압면 동동마을에는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100원 택시를 신규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9번과 21-3번, 23번, 31번, 32번, 33번, 54번이 노선이 조정되거나 종점 변경, 경유지 변경 등 기존에 비해 크게 바뀌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명당·익신산단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중마동 컨부두사거리 등 수목 2만2000주 심어

광양시는 태인동 명당산단과 광양읍 익신산단, 중마동 컨부두사거리 주변 녹지대에 가시나무와 메타세쿼이아 등 16종의 수목 약 2만2000주를 심어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2019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선정돼 전라남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예산의 53%에 해당하는 5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실시됐다.

지난해 하반기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해 명당산단 1·2

지구에 차단숲을 조성하고,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30억원의 예산으로 익신산단에 차단숲을 조성했다.

또 낙찰차액을 활용해 중마동 광양항(컨부두사거리 일원)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등 올해 5.4ha(1만 6360평)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오는 2020년에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에 30억원을 확보해 초남공단과 신근산단 주변 녹지대에 3ha(약 9000평) 면적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도시숲 조성사업'을 통해 16억원을 확보해 광양읍 나들목과 도림미술관 주변 등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녹색공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성범 광양시 공원녹지과장은 "사회재난으로 대두되는 미세먼지가 주거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제22회 광양매화축제 3월 6~15일 개최

광양시는 제22회 광양매화축제를 내년 3월 6~15일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에서 연다고 22일 밝혔다.

광양시는 최근 매화축제추진위원회를 열어 축제 기간을 확정하고 슬로건과 포스터, 대표 프로그램 등을 논의했다.

축제추진위는 '봄 매화, 여름 매실로 힐링합시다!'를 주제로 '봄'과 '힐링'이 넘치는 축제로 만들기로 했다.

광양 지역 청년들이 나와 개막 무대를 열고 음유시인으로 불리는 가수 정태춘이 광양시립국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올해 광양매화축제에서 처음 선보인 '차와 율희매의 만남'은 내년에도 만날 수 있다.

해의 자매-우호 도시 관광중심사 등을 위한 팸투어도 진행된다. 유명 셰프와 함께 하는 매실 쿠킹쇼, 드론이 본꽃 세상, 매화 커플 플래시몹 등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둔치주차장과 행사장을 오가는 셔틀버스 승하차 지점을 3곳으로 늘려 운영한다.

김중호 광양매화축제위원장은 "올해 열린 광양매화축제는 축제 평가 기관으로부터 3관왕을 차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며 "내년에는 젊고 감성이 가득한 소확행(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 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제철-광주전남혈액원 헌혈 약정식

광양제철소(소장 이시우)가 지난 19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생명사랑을 실천하고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 약정식을 체결했다.

광양제철소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지난 1998년부터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과 국가적인 혈액 부족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헌혈 행사를 22년째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헌혈에 동참한 인원은 2만 5000여명이며 올해만 1300명이 참여했다.

특히 광양제철소가 헌혈행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기증받은 헌혈증은 1만 4000여장에 이르며, 이렇게 기증받은 헌혈증 중 9200여 장을 백혈병 환우와 헌혈증을 필요로 하는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헌혈 약정식에는 이시우 광양제철소장, 김영길 광주전남혈액원장, 강용구 노경협의회 대표, 양해득 포스코노동조합 후생복지부장, 문병한 광주전남혈액원 헌혈개발팀장, 안나 간호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약정서에는 꾸준하게 헌혈에 동참해준 광양제철소에 대한 감사와 향후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헌혈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이시우 광양제철소장은 "이번 헌혈 약정식을 통해 국내에서 두 번째, 헌혈 1000명 이상 단일 사업장으로 등재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헌혈은 귀한 생명을 살리는 활동인 만큼 경영이념인 '더불어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대한적십자사가 19일 광양제철소 소본부에서 헌혈 약정식을 체결했다. 광양제철소는 헌혈 1000명 이상 단일기업(사업장)으로 등재 될 예정이다. <광양제철소 제공>

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에 잘 부합되고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

다"라고 지속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70억원 확보

광양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70억원을 확보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에 걸쳐 국비 49억원, 시비 21억원 등 총 사업비 7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촌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농촌지역 자선과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의 발전기반을

구축한다.

시는 공모를 위해 2018년부터 매실산업 관계자 회의, 원탁토론회, 행정협의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중간지원조직, 행정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과 소통하며 계획을 수립해 전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통해 광양 매실산업의 제2의 전성기를 구현하기 위해 매실의 신산업화, 신문화창출, 패러다임 전환 등 목표를 설정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